

숨은그림찾기 <144>



찾아보세요 송사리, 새집, A자, 다리미, 대한민국지도, 펜촉, 열대어, 슬리퍼, 몽당연필

착각

- ▲아줌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하면 개가 쏠아지는 줄 안다.
▲시어머니: 아들이 결혼해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줄 안다.
▲장인·장모: 사위들은 처가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들면 효도할 줄 안다.
▲회사 사장: 사원들을 쪼면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안다.
▲육군 병장: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인터넷 카페지기: 인터넷 카페만 만들어 놓으면 회원이 늘어나는 줄 안다.



지난주 정답 제비, 셔플록, 스폰, 은행잎, 다리미, 종이배, 슬리퍼, 유유팩, 물고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채무부
▲당첨자: 김지형<광주시 동구 남동> 박철아<광주시 동구 산수 2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88년 10월 2일 서울올림픽 폐막

1988년 10월2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밝히던 성화의 불빛이 꺼지면서 제 24회 서울 올림픽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1988년 10월2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제 24회 서울올림픽 폐막식.

한국은 1981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본 나고야와 함께 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같은해 9월 30일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84차 IOC 총회에서 여상을 뒤엎고 서울이 전체 80표 중에서 52표를 획득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올림픽 개최국이 되었다.

'화합과 전진'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서울 올림픽은 1988년 9월17일 역사적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서울종합운동장·동대문운동장·장충체육관 등 서울 및 경기 지역과 4개 지방도시에서 개최된 대회에는 전세계 160개국 1만 3천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우리 전통 문양인 삼태극을 모티브로 한 대회 휘장은 원삼운동과 구슬 운동의 두 형태를 형상화해 세계인이 서울에 모이는 것과 범세계적인 '화합'을 표현, 인류 번영을 위한 '전진'을 나타냈다.

마스코트인 '호돌이'는 위엄과 용맹을 갖추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아기 호랑이를 단순형상화해 부드러운 곡선으로 제작했고,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마스코트임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휠체어경기)가 치러져, 33개의 세계 기록과 227개의 올림픽 신기록이 수립됐다. 대회 1위는 금메달 55개·은메달 31개·동메달 46개를 획득한 소련이 차지했고 동독,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단체전은 물론 개인전 금·은·동을 독식한 여자 양궁을 비롯해 레슬링·복싱·유도·탁구·여자 핸드볼에서 금메달이 쏟아지면서, 금메달 12개·은메달 10개·동메달 11개로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인 종합 4위의 쾌거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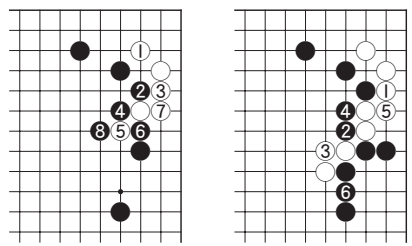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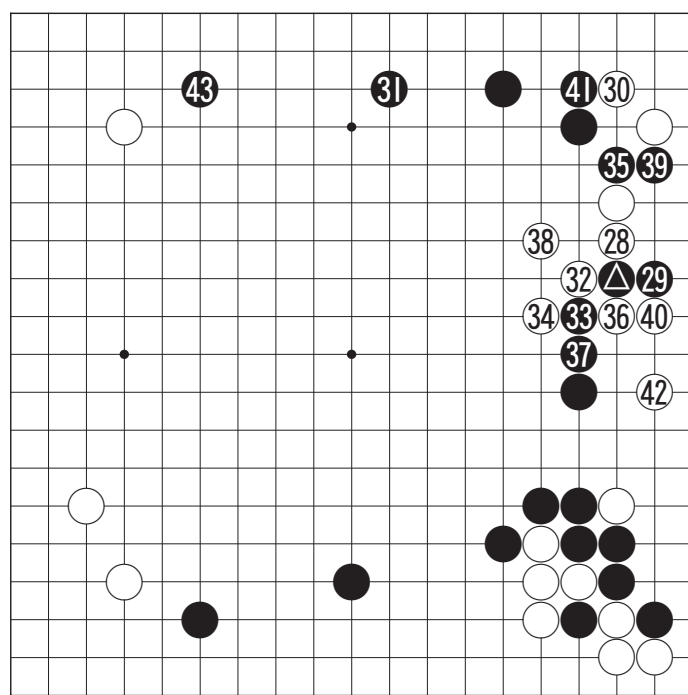
또한 '화합'을 이념으로 내세웠던 서울 올림픽에는 16년 만에 동·서양 진영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면서 인남과 인종을 뛰어 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마최강부 결승

대변화를 부른 임기응변

3보 (28~43) 白 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흑 ▲로 협공한 장면인데 여기에서 선계성 6단은 고심 끝에 백 28로 치방은 고육책을 들고 나온다. 이 수는 '참고도 1'의 백 1로 3·삼에 들어가고 8까지가 정석이다. 그런데 선 6단은 이것이 흑의 주문이라고 보고 봉쇄

를 피해 임기응변한 것이다. 이때 흑은 위쪽으로 늘면 보통인데 심재욱 6단은 흑 29로 아래쪽을 늘여 끈질기게 뒷맛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백 32로 짓히고 34로 연타하는 것이 짜릿하며 기분 좋은 이단정현이다. 그런데 심재욱 6단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흑 35로 붙어 백의 약점을 추궁하고 나선다. 이 수는 백이 '참고도 2'의 1로 받으면 흑 2, 4를 선수한 다음 6으로 잇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그림은 백이 안되므로 즉각 반발하여 42까지 대변화가 일어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일(음 9월 3일 甲戌)

- 36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48년생 어려움을 잠시 일 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0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72년생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일하라. 84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행운의 숫자: 11, 40
37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이해가 된다. 49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61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행하면 발전이 있다. 73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하면 즐거움이 있으리라. 85년생 인생은 연줄이다 멋지게 보내라. 행운의 숫자: 12, 36
38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라. 50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으리라. 62년생 가정불화가 시작되니 서로 서로 양보하면 괴할 수는 있으리라. 74년생 구슬수가 타이머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8, 36
39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1년생 생正道를 걸으면 마음은 밝아진다. 63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75년생 나쁜 일이 찾아다니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9, 40
40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52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64년생 돈이 생기니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76년생 은 식욕이 평안하니 걱정은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06, 29
41년생 알뜰살뜰 지내라 하리라. 53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65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77년생 인맥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마라. 행운의 숫자: 19, 25
42년생 듣기 좋은 말은 목이 되니 주의하여 들라. 54년생 새문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6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78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14, 33
43년생 식욕이 넘치니 조심해 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67년생 다부면 손재주 양보하면 득이 된다. 79년생 지난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으니 다시한 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17, 34
44년생 편안한 하루지만 큰 득은 없다. 56년생 손재가 보이니 오늘 결정을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라. 68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지만 내일을 생각하라. 80년생 마음이 현란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행운의 숫자: 03, 33
45년생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녀의 주변도 살펴보라. 57년생 문단속을 잘라라 도둑이 들 수도 있다. 69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1년생 초고후안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05, 38
46년생 활기찬 하루가 되리라. 58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다. 70년생 마음이 갈갈갈갈하니 심신의 안정을 찾으라. 82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행운의 숫자: 07, 30
47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59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재워지리라. 71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다. 83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릴 수다. 행운의 숫자: 21, 37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1157>

It's pretty embarrassing 그 일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지.

A: I heard Mary had to stay after class. B: Yeah, she was being disruptive. A: Mary had better not yell at her teacher anymore. B: It's pretty embarrassing.

A: 메리는 방과 후 남아있어야 한다던데. B: 그래, 그 애는 발작을 했거든. A: 메리는 더 이상 선생님에게 고함지르지 않는 것이 좋아. B: 그 일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어.

- * after class : 방과 후
* disruptive : 파괴적인, 분열시키는
* yell :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 anymore : 이제는, 금후에는
* embarrassing : 당혹스러운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57>

お祖父(じい)さんによく似(に)ていますね.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A: あそこで泣(な)いている子供(こども)を知(し)っていますか. B: 田中さんの息子(むすこ)です. A: あの子(こ)はお祖父(じい)さんによく似(に)ていますね.

A: 저기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알고 있습니까? B: 타나카씨의 아들입니다. A: 저 아이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お祖父(じい)さん : 할아버지
息子(むすこ) : 아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34>

你画什么呢? 너는 무엇을 그리고 있니?

A: 你画什么呢? ni huà shénme re 너 뭐 그리네
B: 我画一只小羊。 wǒ huà yì zhī xiǎoyáng 뭐 양 하나 그리네
A: 小羊做什么呢? xiǎoyáng zuò shénme ne 소양 뭐 하네
B: 小羊在草地上吃草。 xiǎoyáng zài cǎodìshàng chīcǎo 소양 풀 먹고 있네
A: 너는 무엇을 그리고 있니? B: 한 마리의 양을 그려.
A: 양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B: 양은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있어.

你 [nǐ] 너
草 [cǎo] 풀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빌딩)> ☎ 383-1605

한자 이야기 <874>

越官之禍 (월관지화)
넌을 월, 말을 관, 어조사 지, 재앙 화

월관지화(越官之禍)는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서 하는 일의 재앙이라는 뜻으로, 곧 자신의 직무를 넘어 다른 사람의 직무를 넘보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의미이다.
전국시대 한(韓)나라의 소후(昭侯)는 임금인 어느 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그 옆에서 시종을 들던 전관(典筮, 왕관 담당의 관리)이 추위에 왕의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어 옷을 덮어주었다. 왕이 술에서 깨어 옷을 덮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좌우 신하들에게 누가 옷을 덮어 주었냐고 물었다. 이에 신하들은 전관(典筮)이 덮어드렸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들은 소후(昭侯)는 전관과 전의(典衣, 옷을 담당하는 관리) 두 사람 모두에게 벌을 주었다. 전의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고, 전관은 자신의 임무를 벗어나서 월관(越官)했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다. 임금은 자신이 추위에 감기 드는 것보다 자신의 말은 임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에 간섭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韓非子, 二柄)
'전관'은 임금의 모자만 담당하면 되는데, 감히 자신의 임무를 넘어서 옷까지 멋대로 사용한 것이니 '월관(越官)'을 한 것이다. 오늘날 영어로는 '월권(越權)'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